

PEOPLE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GS칼텍스, 상반기 대정비 마무리
3083억 투입...연인원 9만1000명 참여

GS칼텍스는 올해 상반기 대정비작업(TA)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3083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 말부터 6개 팀 13개 공점에서 상반기 대 정비 작업을 펼쳤다.

1일 평균 2270명, 연인원 9만1000명이 40여일간의 대장정에 함께했다. 인건비 등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투입 비용 중 70~80%는 지역업체 활용 및 지역 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등에 사용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GS칼텍스는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작년에 이어 대거 투입했다.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상반기 TA에 적용한 대표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지게차 접근 금지 시스템과 AI CCTV,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추락 보호 안전조끼 등이 있다.

지게차 접근 금지 시스템은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지게차에 접근하면 LED 점멸 및 알람으로 즉각 경고하고 인체 인식 경고시스템과 연동해 작업자가 지게차 이동 공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선이 그려진다. 또 AI CCTV를 통해 안전 수칙 미준수 시 경고를 울리고, 모바일 CCTV를 활용해 작업장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유해 가스 잔존 유무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자들은 센서를 통해 추락이 감지되면 에어백이 자동으로 작동해 작업자를 보호해 주는 '추락 보호 안전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최고 안전 환경 책임자)는 "'위험할 땐 멈춤, 동료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 퇴근합시다'라는 안전 구호 아래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했다"면서 "대정비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동구-피스원즈코리아
유기견 입양 활성화 '맞손'

광주 동구와 재단법인 피스원즈코리아는 최근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반려 문화 생태계 조성, 도심형 입양센터 시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도심형 입양센터 시범 운영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추진되며, 입양센터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운영은 비영리단체 피스원즈코리아가 맡아 입양 연계, 보호 활동, 시민 대상 교육·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피스원즈는 일본 히로시마현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에서 입양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 4년간 27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4300여마리의 유기견을 입양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문인들과 세월호 추모행사 진행, 잘한 것 같아요”

세월호 11주기 작은 콘서트 연 흥관희 시인
선율 선사하며 작품 낭송...지역 공유 자리

“세월호가 침몰했던 인근 섬인 조도에 근무하던 분이 여기 카페에서 작은 추모 행사를 열어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지난 8일 급조가 된 행사예요. 하지만 행사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문인들을 몇몇 규합해 작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자리를 마련한 시집 '사랑 1그램'의 저자인 흥관희 시인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나주시 남평 드들강변 소재 강물 위에 쓴 시 카페에서 세월호 11주기를 기리기 위해 '지역'이라는 주제로 작은 콘서트를 연 뒤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작은 콘서트는 기타리스트 홍기석씨의 노래와 색소포니스트 유진주씨의 연주 등 선율이 선사되며 이어 무대에는 여러 문인들이 올랐다. 이날 무대에는 조성국 이재연 박봉규 시인, 아동문학가 겸 사진작가인 엄수경씨, 박이수 소설가 등이 함께 했다.

이중 조성국 시인은 단원과 학생들이 입고 있던 운동복을 형상화한 자작시로 희생 학생들의

엄마 이야기까지 담아낸 시 '삼선운동복'을 들려주는 등 문인들의 낭송으로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조 시인은 '열집 친구 언니에게 상의를 빌렸다/하의는 남동생 것을 빌려 입고 갔다/붉고 까만 색이었다/수학여행 길에 오른 옷은 끝내 돌려보내지 못했다/돌려주지 못한 옷과 똑같은 옷을 사서 손에 쥐어 주었다/떨에 예전 사주지 못한 옷이었다/같은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이라서/무척 입고 싶은 것이었지만/옷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던 사실이/상처뿐인 마음을 더욱 짓누른다 아직도 엄마는 그 힘으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치려 나간다'('삼선운동복' 2연)라고 읊었다.

전남 진도 조도의 주인공은 홍기석씨고, 색소포니스트 유진주씨는 이곳 카페 손님이었다. 유씨는 취지가 좋아 합류하게 된 경우다. 문인들은 저마다 기억과 관련된 시와 소설 등을 낭독했



흥관희 시인



14일 오후 나주시 남평 드들강변 소재 강물 위에 쓴 시 카페에서 열린 세월호 11주기 '지역'이라는 주제의 작은 콘서트 장면. 조성국 시인이 마이크를 잡고 시 '삼선운동복'에 대한 낭송을 하고 있다.

다. 광주 중심가도 아니고 한적한 남평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이 작은 콘서트는 뜻밖의 사람들끼리 점차 잊혀져가고 무뎠어가는 세월호에 대한 기립 행사였다.

홍 시인은 “11년 전 4월에 명퇴권고를 받은 상황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후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을 했다가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야 했지만 훈장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 것과 관련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블랙리

스트'라는 훈장으로 인해 늘 속에 담고 살아왔다. 그러다 그 마음의 짐을 털어낸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열었는데 진행하길 잘한 것 같다. 비도 오고 해서 분위기가 더 좋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인은 이날 참여 문인들이 기억과 관련된 작품 낭독 외에 꾸준히 인문학 공부를 해온 장본인들이어서 희생자들을 되새기면서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이있는 대화까지 더해지는 등 지역 공유의 자리로 꾸며졌다는 설명을 잊지 않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편집자유권 보장...취재·편집 기자 간 소통을”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구독자 관심사 반영한 콘텐츠 개발”

광남일보는 15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편집자유권 보장에 대해 교육했다.

제목 뽑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제목은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기자는 데스크와 의견을 조율한 뒤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수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일반 상업광고 외에도 공익광고 게재를 통해 각종 사회 문제, 부조리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는 브랜드 성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구독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구독자 관리 강화로 이어진다고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배달사고 예방 방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신문은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5일 편집국 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며 “구독자의 기대와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소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언론인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l235@

전남개발공사, 해비타트에 공모 상금 전액 후원금 기부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에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11회 주거복지활동 우수 사례 공모'에서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전액 2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후원금 전달식은 14일 한국해비타트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후원금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수상으로 얻은 뜻깊은 결실을 사회와 나누고자 상금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저출생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지역활력타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구 기자 gnnews1@

공군 1전비 전대성 준위, 조혈모세포 기증

30년 근속 항공기 정비 전문가

전대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준위(사진)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생명의식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항공기정비대대 소속인 전 준위는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유전자와 일치하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7기 졸업생인 전 준위는 30년 가까이 항공기 정비 업무에 헌신하며 헌혈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58차례의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헌혈 금장을 받은 전 준위는 자녀에게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NGO 단



체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전 준위는 2011년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 올해 1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를 찾은 후 기증을 확정했다. 조혈모세포는 가족 간에도 유전자 일치 확률이 5%에 불과해 타인 간 기증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건강 관리를 위해 몇 달간 꾸준히 운동한 전 준위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생명의 나눔과 기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h4415@gwangnam.co.kr



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5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동구, 예술의 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15일 상황실에서 예술의 거리 경관특화 및 활력증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갖고 예술의 거리 예술간판, 가가호호 아트베너, 거리 경관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